

<창조적 전통주의>관점에서 본 일본론*

李 珍 鎬**

(e-mail : jhleeh@wku.ac.kr)

<目 次>

- | | |
|----------------------|-----------------|
| 1. 머리말 | 3. 창조적 전통주의의 배경 |
| 2. 선행의 일본론과 창조적 전통주의 | 4. 맺음말을 대신하여 |

キーワード：日本論(Japanese theory), 普遍的イデオロギー(Universal ideology), 創造的伝統主義(Creative traditionalism), 文化受容国(Culture recipient country), ストップ文化(Stop culture)

1. 머리말

지구상 어떤 나라도 그 나라 나름대로의 국민정서상에 갖는 보편적 이데올로기는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이데올로기는 흔히 일컫는 아이덴티티나 국민성이라 해도 좋다.

가령 중국·중국인하면 우선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그들의 중화사상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역사적으로도 과거 오랫동안 동아시아의 패권국이자 문화중주국으로서, 종이·나침판·화약·인쇄술과 같은 4대발명과 더불어 漢字를 비롯한 여러 문화의 發祥地였다는 점에 기인한 그들의 창조적 문화성향¹⁾과 결부되어 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이다.

* 이 논문은 2018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 원광대학교 교수 일본고전문학

1) 한 나라의 문화적 성향이 창조적이냐 수용적이냐 하는 문제는 그 나라의 지정학적 요소로써 역사나 지역 혹은 풍토적 특수성등과 연계되어 종종 회자되어지곤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반도국으로서 과거제도를 비롯한 중국문화의 수용과 더불어 대표적인 예로 한글창제와 같은 창조적 경

그러나 그렇다 하여 이 중화사상이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중국인 외의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 중화사상은 때로는 중국·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요소와 결부되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 또한 중화사상인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문화상호주의적 견지에서 이와 같은 부정적 요소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용어사용 또한 가능한 한 해당국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그러면 일본·일본인이 갖는 보편적 이데올로기는 과연 일언하여 무어라 해야 할까? 물론 한 나라의 국민정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할 수가 있을뿐더러 지역적인 면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이 상례로, 지금까지 많은 일본관련 언급이 시사하듯, 일본은 특히 東西(東国·西国)간의 지역형성과정에 기인한 문화의 차이가 존재하여²⁾ 한마디로 요약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과거에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도 언급했듯, 일본인의 국민정서에는 공격적이지 비공격적이며 군국주의적이지 탐미적이고 불손하면서도 예의 바르고 완고하면서도 적응성이 풍부한 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양면성이 존재하여,³⁾ 이와 같은 미시적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二元的 性향은 동서간의 문화차이에 기인할지도 모를 일이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3국은 같은 한자문화권으로서 불교나 유교와 같은 종교적 측면은 물론, 예를 들어 풍수사상이나 여백문화와 같은 문화상의 동질적인 의식이 공존하여, 이와 같은 동질적 의식구조는 한 나라의 국민정서로서 다른 나라와 차별성을 갖는 보편적 이데올로기를 탐색하기에 장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록 국민정서상에 보이는 이원적 성향이나 문화적인 측면의 동질적인 의식구조가 존재한다할지라도 각 나라마다의 지정학적 혹은 풍토적 성향과 연관된 異文化수용 태도나 이해의 차이가 존재함은 자명한 일로, 우리는 이를 통해 일본·일본인의 특징적인 사고경향을 조명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여

향도 견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섬나라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에 기인한 외래문화 수용국으로서 수용적 성향이 매우 강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2) 이에 대한 세세한 언급은 網野善彦(1991) 『日本の歴史をよみなおす』(筑摩書房), 同氏(1998) 『東と西の語る日本の歴史』(講談社学術文庫)등을 참조바람. 여기서 網野씨는 東西간의 문화차이의 태생적 배경으로, 關東의 원류는 繩文人系로 가부장적인 이예(家) 사회인데 반해, 關西는 渡来人系로 母系的인 무라(村) 사회였던 점 등을 밝히고 있다.

3) 루스·베네딕트著, 김윤식·오인석 옮김(1991) 『국화와 칼』(을유문화사, p.8). 여기서 베네딕트는 그 책명이 시사하듯, 상기 외에도 일본인이 갖는 양면성으로써, 유순하면서도 귀찮게 시달리면 분개하고, 충실하면서도 불충실하며, 용감하면서도 겁쟁이이고, 보수적이면서도 새로운 것을 즐겨 맞이한다고 하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기서 굳이 이문화수용云云하는 것은 유사 이래 일본은 줄곧 외래문화 수용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왔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일본·일본인의 보편적 이데올로기로서, 거시적 측면의 사회제도나 현상과 관련된 문화수용 양상을 통해 자고이래 그들이 갖는 창조적 전통주의성향에 초점을 맞추어 論을 전개하고, 또한 그 起源과 연관된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해보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 일본·일본인이 갖는 전통주의의 성향은 물론 과거 일부에서 회자되어온 바이긴 하나, 그것이 너무 단편적이고 또한 소극적인 면이 있어, 본고에서는 이 전통주의에 창조적이라는 문구를 더하여 또 하나의 일본론으로서 자리매김해보고자 한다.

2. 선행의 일본론과 창조적 전통주의

지금까지 일본·일본인에 관한 언급은 일본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도 많은 論者들에 의해 행해져왔다. 그중에서 일본 자국민에 의한 언급은 제외하더라도, 우선 인터넷상에 소개된 외국인에 의한 일본론 명저만 해도 수십 권을 헤아릴 정도이니 그 관심도는 대단한 것으로, 그만큼 일본·일본인이 얼마나 특이적이고 양면성을 띤 존재일까를 방증할 것이다. 그중에는 예를 들어 무사도 정신이나 忠의 문화처럼 용어만 다를 뿐 연관성 있는 유사한 내용을 비롯하여, 일본 특유의 성향으로 보기에 는 어려움이 뒤따르는 내용 등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는 바, 여기서는 그 주요 골자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먼저 문화적 특성으로는 앞서 인용한 『국화와 칼』 저자로 유명한 루스 베네딕트의 「수치의 문화(恥の文化)」를 예로 들 수가 있다. 이는 한마디로 일본인의 행동양식에는 타인의 감정이나 평판은 물론 자신의 체면을 중시하는 성향이 매우 강하여 수치가 하나의 도덕률로 내면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베네딕트는 그밖에도 일본인이 갖는 정서로써 의리와 인정, 은(恩)의 개념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결코 일본만의 경향이라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또한 韓準石의 『文의 문화와 武의 문화(文の文化と武の文化)』(有斐閣, 1989)에서 언급하는 「武의 문화」를 들 수가 있다. 다만 여기서 언급하는 「武의 문화」는 종래에 언급되어온 武의 문화의 초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책은 본디 한일 양국의 근대화의 성공여부를 文과 武의 문화적요소를 통해 가름한

내용으로, 여기서 언급하는 「武의 문화」는 일본·일본인의 무사도 정신이나 忠의 문화, 혹은 종적 사회론 등 여타의 일본관련 언급과 유사한 내용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아울러 성향상의 언급으로는 일본자국민에 의한 대표적인 일본론으로 도이 다케오(土居健郎)의 『응석의 구조(「甘え」の構造)』를 정면으로 비판한 이어령의 『축소지향의 일본인(縮み指向の日本人)』(東京, 学生社, 1982)을 들 수가 있다. 이 책은 일본에서 처음 간행된 이래 수차례에 걸친 개정과 더불어 한국어는 물론 영어와 불어로도 번역되는 등, 일본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아왔다. 이는 작은 것에 미의식을 느껴 모든 것을 축소하는데 역점을 둔 일본 문화의 성향을 여러 예시를 통해 귀납시킨 명저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것이다.

또한 한국국내에서 발행된 대표적인 명저로는 수학자 김용운 박사의 4부작 『한국인과 일본인』(한길사, 1994)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勞作에는 일본·일본인에 대한 성향이 총망라되어 있는데, 박사는 일본인 성향의 대표적인 原型으로서 可畏정신을 언급하고 있다. 이 가외정신은 박사의 언급을 빌리자면 「위를 무서워하고 오직 눈앞의 일 하나 만에 주의해서 살아가는」⁴⁾정신으로, 이는 그 명칭이 원형인 만큼 예를 들어 장인정신과 같은 여타의 일본인의 성향을 설명하는데 유효할 것이다.

또한 미국인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은 『극동의 혼(極東の魂)』(公論社, 1977)이라는 책을 통해 일본인의 沒個性적인 성향에 대해 언급한다. 이를 집약시켜 말하자면 일본인은 개성이 없고 집단적이며 독자적인 사상을 갖지 않고 외래문화의 유입과 모방에 능숙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밖에도 일본·일본인의 정서와 관련된 언급으로는 오싱코(お新香)문화,⁵⁾ 집단주의문화, 여백(間)문화, 와(和)의 문화,⁶⁾ 와비·사비·모노노아와레(わび·さび·も

4) 김용운(1994) 『한국인과 일본인』 3(한길사, p.239). 그 밖에도 김용운 박사는 일본인의 원형으로 「받들어 모시는 형」 「릿파(立派) 정신」 등, 다양한 접근과 표현을 통해 일본·일본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다만, 이 4권의 시리즈는 40여년에 걸친 박사의 勞作으로 일본·일본인관련 기술이 총망라되어 있어 한 마디로 집약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는 그만큼 일본·일본인의 다양성을 방증할 것이나, 줄거리의 핵심은 아마도 可畏정신으로 집약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5) 이는 재일한국인 金兩基씨의 언급(『キムチとお新香』中央公論社, 1987)으로, 오싱코 문화는 우리나라의 김치문화에 대비되는 표현이다. 여기서 씨는, 한국인은 김치의 맛이 강렬한 것처럼 행동이나 의사표현이 확실하고 애매모호한 점이 없어 절대적이고 일원적인 가치관을 갖는데 반해, 일본인은 새콤달콤한 그들의 新香 맛처럼 言動이나 태도가 애매모호하고 회로애락을 걸음으로 표현하기를 꺼리어 상대적이고 다원적인 가치관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6) 여기서 和는 일본 고대의 야마토(大和)國 명칭에 기원을 둔 용어로 여러 논자들에 의해 회자되어

ののあわれ)7) 등등, 일본의 문화나 미의식에 대한 기존의 언급은 여러 시각에서 다양한 용어가 범람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언급은 나름대로 일본·일본인의 정서를 대변할 것이나, 개중에는 서양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거나 혹은 모노노아와레처럼 시대적인 특징으로 일괄시킬 수 있는 요소 또한 있을 것이다. 그중 앞서 언급한 베네딕트의 수치의 문화나 의리와 인정, 은(恩), 체면중시 성향, 그리고 여백문화8)등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유교문화가 존재하는 나라에서 감지할 수 있는 한 패턴으로 결코 일본 특유의 성향이라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선행언급과는 별개로, 현시점에서 일본의 정치나 사회, 문화 등 거시적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전반적인 사회제도나 현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예를 들어 소박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그것은 현재 일본의 사회제도나 현상이 과연 선행의 일본·일본론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함이다.

먼저 정치관계로, 일본의 천황제 시작은 한때는 스이코(推古)천황이라는 설이 있었으나, 요즘은 7세기 후반 덴무(天武)나 그의 妻 지토(持統)천황 때부터라는 설이 대세이다. 즉 이는 황위계승싸움이었던 진신노란(壬申の乱, 672년)에서 대승을 거둔, 후의 덴무 천황 오아마노오지(大海皇子)가 종래의 오키미(大君·大王)에서 天皇으로의 변신을 꾀한 것이 그 시작으로, 천황은 오키미와는 차원을 달리한 別格존재였다. 이때부터 소위 그들이 말하는 황실중심의 고신(皇親)정치가 시작되는데,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절대군주의 親政에 따른 진정한 영웅시대의 도래를 의미할 것이다. 이 시기부터 일본은 비로소 기록의 필요

왔다. 이를 집약시켜 말하자면, 和는 歐米의 개성중시문화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본문화의 본질이 집단적 질서나 안녕 혹은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문화라는 점을 말한다.

7) 여기서 와비·사비는 각각 일본茶道の 완성자 센노 리큐(千利休)와 하이카이(俳諧)의 완성자 마쓰오 바쇼(松尾芭蕉)가 표방하는 미적 이념으로, 지금은 일본문화를 대변하는 개념으로 여러 논자들에게 의해 언급되어지곤 한다. 즉, 와비는 본디 장식이나 치장 따위의 사치스러운 요소를 버리고 검소하고 차분한 정서를 말하며, 사비는 한마디로 고풍스럽고 靜인 취향을 말한다. 또한 모노노아와레는 원래 일본国학의 완성자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가 『겐지모노가타리타마노오구시(源氏物語玉のお櫛)』라는 책을 통해 平安 시대성립의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정취를 언급한 용어로, 이 또한 지금은 일본문화를 대변하는 용어의 하나로 종종 회자되곤 한다. 이는 일언하여 자연이나 인생 혹은 예술 등에 자극을 받을 때 느낄 수 있는 절실한 정취나 비애감을 말한다.

8) 일본의 여백문화 관련은 拙稿 「일본의 여백문화와 요세이(余情)(2)―〈하나비〉와 〈기미가요〉를 통해 감지할 수 있는 정서적 여백의 가능성과 관련하여―」(『日本文化学報』第46輯, 2010, 8)를 참조바람. 여기서 필자는 宋학의 시조 주돈이의 『太極圖說』에 보이는 「無極而太極」 설을 여백문화의 기원중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

성을 느끼고 일본最古의 『고지키(古事記)』가 기획되기도 하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일본의 천황제는 시기적으로 보자면 지금의 나루히토(德仁)천황까지 약 1300여 년간이나 오랫동안 한 계통의 万世一系로 계승되어온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천황은 시대에 따라 그 권력이나 권위의 변천이 있어왔다고는 하나, 세계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들이 말하는 万世一系로 지속되어왔던 점으로, 여기에 천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이전으로, 소위 일컫는 야마토(大和)정권시절조차 한 번도 왕조교체가 없었음을 想起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⁹⁾

그러면 이와 같이 왕조의 교체도 없이 万世一系로 지속되어왔던 그 배경이나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만할까? 여기에 흔히 그들 일본사에서 언급하는 1대 진무(神武)시대까지를 계산에 넣자면 그 수치는 지금의 나루히토 천황까지 무려 126代 2679년 동안이나 지속되어왔던 셈으로, 이는 세계역사상 참으로 괴이한 현상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통해 보자면 일본역사상 천황의 변수는 시대마다 있어왔다. 즉,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당대의 천황가 一系에 의하지 않는 천황찬탈의 기회는 있어왔던 것이다. 아스카(飛鳥)시대 권력의 중심에 서있던 소가노 우마코(蘇我馬子)가 그렇고, 헤이안(平安)중기 세이와(清和)천황시대 이래 외척세력에 의한 섭정정치의 최 정점에 자리했던 후지와라노 미치나가(藤原道長)는 물론, 헤이안 말기의 다이랴노 키요모리(平清盛) 또한 그렇다. 특히 미치나가의 경우는 一家三后라는 말이 존재하듯 몇 대에 걸쳐 자신의 女息을 천황의 부인으로 만들고 「이 세상이 모두 내 세상이다. 둥근 만월이 나에게 저문 적이 없으니(このよをばわがよとぞおもふもち月のかけたることもなしと思へば)」(『袋草紙』所収)¹⁰⁾라는 와카(和歌)을 읊을 정도로 반석의 권력을 손에 쥔

9) 다만 26대 게이타이(繼體)天皇의 경우는 異論이 있어, 『記紀』에 의하면, 25대 부레쓰(武烈)天皇이 後嗣없이 죽자 그의 5世孫에 해당하는 繼體天皇이 중앙 유력호족들의 추대로 즉위했다고 되어있으나, 이 내용은 戰後 繼體天皇의 특이한 출생에 즉위에 이르기까지의 전례가 없는 경위에 착목한 왕조교체설이 제창되어 지금도 일본학계에서 議論중에 있다. 즉, 그는 본디 大和王朝와는 관계가 없는 지방호족(越前國)출신으로, 실력으로 왕위를 찬탈하여 신왕조를 창시했다는 것이다. 이 繼體天皇은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은 인물로, 定説은 아니나 만약에 이 說이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일본역사상 유일무이한 왕조교체로, 일본의 천황제는 오늘날까지 이 繼體天皇계통의 一系에 의해 이어져온 셈이다.(ja.wikipedia.org/wiki/繼體天皇)(검색일:2019, 07, 12)참고.

10) 和歌 인용은 『新編国歌大観』第五卷(角川書店, 1987, p.1001)本으로, 우리말 번역은 필자에 의함.

재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수는 중세이후도 마찬가지이다.

무로마치(室町)막부 3대 쇼군(將軍)으로 남북조 내란을 잠식시킨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를 필두로 천하통일 직전까지 갔던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혹은 천하통일을 이룬 인물로 조정을 칠 힘이 누구보다도 충분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그리고 에도(江戸)시대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또한 예외일 순 없다. 그중, 특히 요시미쓰는 고코마쓰(後小松)천황의 생모가 죽자 두 번에 걸친 천황의 양암(諒闇)은 불길한 징조라 하여 자신의 正室 히노 야스코(日野康子)를 천황의 代理母격인 준모(准母)자리에 앉힘으로써 자신은 准上皇으로서 아들 요시쓰구(美嗣)를 천황에 등극시키려는 찬탈계획을 세웠던 인물¹¹⁾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결과적으로 천황의 권위보다는 권력을 택한 셈이 되어버렸다.

여기서 재차 묻건대, 일본의 이와 같은 경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까? 혹자는 그 배경으로 일본은 비록 몽고내습과 같은 타국으로부터의 침략은 있었으나 국토를 빼앗긴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내세울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가 없는 바로, 이는 後述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를 증명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중국은 주지하듯 秦나라 始皇帝이래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성혁명이 있어왔다. 또한 흔히 일본과 유사한 성향을 갖는다고 일컫는 영국은 한때 王權神授說이 존재하기도 했으나, 색슨(Saxon)왕조이래 오늘날 윈저(Windsor)왕조까지 9번이나 왕조가 바뀌기도 했다. 물론 그 동안에는 덴마크계나 프랑스계 왕조가 있기도 했으나, 아무튼 일본처럼 万世一系가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또한 한 때 세계 패권국이기도 했던 스페인도 카스티야-아라곤(Castilla-Aragon)왕조이래 지금의 부르봉(Bourbon)왕조까지 4번이나 바뀌었다. 그러나 일본의 천황제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이에겐 뭔가 일본·일본인만이 갖는 국민정서상의 보편적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전통을 고수하려는 일본특유의 전통주의 문화가 작용한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은 전통고수성향은 일본의 年号제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일본은 소위 元号(元号)라 일컫는 年号(和曆)와 더불어 西曆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번거로움은 가끔 일본국내에서도 회자되곤 한다. 그러나 그럼에

11) 義滿의 천황찬탈관련은 今谷明(1990) 『室町の王權—足利義滿の王權篡奪計畫』(中公新書)을 참조바람.

도 불구하고 21세기를 훌쩍 넘긴 오늘날까지도 이 연호를 고집하는 나라가 세계 그 어디에 있으랴.

일본의 연호제도는 645년 고토쿠(孝德)천황 때의 다이카(大化)부터로, 지금의 레이와(令和)까지 무려 1374년이나 지속되어온 하나의 일본문화이다. 이 연호제도는 기원전 중국 前漢시대의 武帝때부터로,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한자문화권에서 사용되어오다가 서양문화의 범람 속에 폐기된지 오래다. 그러나 일본은 어떠한가? 일본에서는 일찍이 천황이 바뀔 때는 물론 자연재해가 심할 때도 개정되기도 했는데, 특히 무로마치 시대 고하나조노(後花園)천황 재위 시에는 무려 8번이나 바뀐 적도 있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일본은 지금까지 248개의 연호가 있어왔던 셈이다.

연호개정은 과거 쇼와(昭和)천황까지는 천황스스로가 개정했으나 1979년 元号法이 개정된 이래, 연호는 정부각령으로 발표하고 천황교체 시에만 개정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각령의 근거로 1977년 8월에 실시된 일본내각 홍보실발표 연호관련 의식조사에 따르면,¹²⁾ 연호제도가 필요하다(소극적도 포함)는 의견이 78.4%로, 없어야한다(소극적도 포함)는 의견 6.7%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로는 예로부터 전래된 관습으로 시대구분이 명료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91.1%로 대세를 이룬다. 또한 현재도 연호를 주로 사용한다는 비율이 88.6%로 西曆을 쓰고 있다는 의견 3.4%를 훨씬 상회한다. 그만큼 일본의 연호사용은 얼마 전 천황교체시의 연호개정에서 보듯 국민적으로도 대단한 관심사로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일본특유의 성향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전통주의사상을 명확히 보여주는 한 요소가 아닐까? 이와 같은 성향은 사회현상의 일환으로 장인정신(職人魂)과 관련된 수많은 일본의 老舗의 존재를 통해서도 언급할 수가 있을 것이다.

흔히 일본의 장인정신은 에도시대 확고한 신분제 속에서 직업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했던 사회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중론으로, 부수적으로는 일본

12) 이하는 (survey.gov-online.go.jp/s52/S52-08-52-10.html) 「元号に関する世論調査」内閣府政府広報室 (검색일:2019, 07, 17) 참고. 그밖에 인터넷상에 소개된 것으로 가장 최근(2019, 04, 17)에 실시한 産経新聞과 FNN(후지뉴스네트워크)의 합동여론조사에 의하면, 연호제도 유지에 찬성하는 일본인 연령대와 그 비율은 각각, 18-19세:85.4% 30대:86.4% 40대:87% 50대:83.7% 60대 이상:78.2%를 차지한다(www.sankei.com/politics/news/.../plt1901210037-n1.ht...)(검색일:2019, 07, 17). 그러나 이 비율은 주지하듯 각 신문사의 성향은 물론 좌파냐 우파냐 혹은 정당지지자들에 의해서도 차이는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어느 여론조사도 연호제도를 계속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폐지보다 훨씬 많다는 점에 있다.

古來의 이에모토(家元)제도나 徒弟제도와 결부된 그들의 忠의 문화가 거론되기도 한다. 또한 畧의 체제가 다분히 순응적이며 忍從적이었던 浄土真宗을 비롯한 종교적 영향도 배제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역사학자 아미노 요시히코(網野善彦)에 의하면 일본의 職人, 즉 오늘날의 장인 개념은 원래 남북조시대 중후반기 이후에 생긴 것¹³⁾으로, 필자 또한 그 연장선에서 일본의 장인정신의 배경의 하나로 헤이안 중후반 이래 그들이 갖는 직업 활동의 자유와 특권의식에 기인한 자긍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힌 바 있다.¹⁴⁾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일본의 장인정신이 오늘날까지도 존속되고 있고 이를 증명하는 노포의 수가 세계 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점으로,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가에 있을 것이다.

인터넷상에 소개된 일본의 노포관계 기사를 보면,¹⁵⁾ 2010년 시점에서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갖는 일본의 노포 수는 총 33,069개社로, 여기에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체수를 더하면 10万에 가까워 일본은 세계 노포기업의 80%를 차지한다. 이는 그야말로 흔히 일컫는 노포초강국(老舗超大国)으로서의 일본의 위상을 말해준다 할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노포기업은 140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오사카(大阪) 소재의 공고구미(金剛組)로, 이는 578년 四天王寺건립을 위해 聖徳太子가 백제로부터 초빙한 공고 시게미쓰(金剛重光)가 설립한 업체이다. 다음으로 1300년을 넘는 것으로는 이시카와(石川) 県 소재의 료칸(旅館) 호시(法師)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도 1000년을 상회하는 기업 7개가 모두 일본소재이다. 일본이외의 기업으로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소재의 菓레스토랑으로 그 전통이 803년이라 하니, 그 차이는 실로 대단하다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수치는 인터넷상의 언급으로 그 신뢰도면에 의문의 여지가 없진 않으나, 굳이 부연하자면 세계적으로 200년 이상 된 노포기업 수는 총 5586개사로, 그중 절반 이상이 일본기업이고, 다음

13) 網野善彦(1980) 『日本中世の民衆像—平民と職人—』(岩波新書, p.107). 網野씨에 의하면, 職인이 수공업자를 지칭하는 가장 빠른 예는 1367년 南北朝 중후반에 성립한 「東寺百合文書」로, 그 후 戰國時代부터 다용되다가 에도시대에는 이미 일반화되었다 한다. 세세한 사항은 『同書』를 참조바람.

14) 拙稿 「문학작품이 미치는 사회현상—고다 로향(幸田路伴)의 『오층탑(五重塔)』을 통해 보는 大衆開導 성향의 장인정신과 관련하여—」(『日本文化學報』第58輯, 2013, 8). 그 세세한 전후관계는 이 拙稿를 참조바람.

15) 이하는 (batonz.jp/learn/223/) 「世界の老舗の80%は日本にある!?意外と知らない老舗大国日本の秘密」 パトonz(Batonz)運営人大山敬義(검색일:2019.07.19.)에 의함. 참고로 바톤즈社は 일본의 가업계승관련 전문회사이다.

으로 독일 837社, 네덜란드 222社, 프랑스 196社 순이다. 이와 같은 가업승계는 정치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일본에서 국회의원(衆議院, 參議院)이던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 아들이 대과가 없는 한 지역구를 승계 받아 당선이 되는 세습의원도 상당수 존재하여,¹⁶⁾ 이것이야말로 우리와는 다른 특이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거듭 제기하건대, 그러면 이와 같은 일본의 경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지금은 기억에 회미하지만 필자가 과거 某신문지상에서 본 기사 중에 <까다로운 일본시장, 한번 뚫으니 물 반, 고기 반>이라는 표제어가 생각난다. 이는 무역업자들 사이에서 종종 회자되는 일본과의 거래의 난이성과 수월성을 말하는 것으로, 일본과의 거래성립에는 그들 나름의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 매우 어려움이 뒤따르나, 일단 한번 성립이 되고나면 신용 면에서 큰 어긋남이 없는 한 물 반, 고기 반처럼 통련할 수 있다는 것일 게다. 즉, 그들은 큰 변수가 없는 한 거래처로서의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문화계에서도 엿볼 수가 있어, 일본이 자랑하는 4대 고전 예능으로 유네스코지정 세계 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한 노(能)·교겐(狂言) 분라쿠(文樂) 가부키(歌舞伎) 또한 예외가 아니다. 여기에선 그중 가장 오래된 노 하나만을 예로 들기로 한다.

주지하듯 노는 본디 나라(奈良)시대에 唐나라의 散樂이 일본으로 전래된 일종의 雜芸이다. 이것이 헤이안 시대에는 사루가쿠(猿樂, 申樂)라 하여 해학적인 요소가 더해지더니, 무로마치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루가쿠노 노(猿樂の能)라는 명칭으로 당대에 유행하던 구세마이(曲舞)나 詩歌등 여타의 선행예능이나 문학적 요소를 더하여 재탄생된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간아미(觀阿弥)·제아미(世阿弥)父子에 의한 노의 大成인데, 이는 무로마치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 때의 일이다. 그런데 물론 당시와 지금은 상연시간이나 발성법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약 600여년이 경과한 오늘날까지도 당시의 언어와 몸동작(仕草) 그대로 상연되고 지금도 대중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그 연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는 교겐, 분라쿠, 가부키 또한 마찬가지로, 그밖에도 지금은 대중들로부터 큰 호응은 얻고 있진 않으나 노에 앞서

16) 참고로, 인터넷상에 보도된 정치관련 기사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정계의 세습의원 비율은 약 20%로, 한때는 60%에 달했던 때도 있었다한다(Daum 정치뉴스 동아일보 동경특파원 김범석·박형준 특파원 발 2019, 08, 07일자 기사).

가마쿠라 시대부터 무로마치 초기에 유행했던 헤이케가타리(平家語?), 즉 그 일환인 헤이쿄쿠(平曲)또한 예외일순 없다. 즉, 이들 모든 예능은 물론 그 정립까지의 과정은 다르다하겠으나 지금도 각 관련극장에서 옛 모습이나 언어 그대로 상연되어 일본인은 물론 외국인들로부터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중 노는 일본의 고전어에 능숙한 사람일지라도 특히 시가인용부분 이해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어 경청한다 해도 이해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¹⁷⁾ 이는 가케코토바(掛詞)나 조코토바(序詞)등 헤이안 시대이래의 와카 세계에서나 보는 수사법이 다용되고 또한 대사전개상의 重音이 일반적이어서 그럴 것이다. 즉, 현대 일본인이 감상하기에도 매우 어려움이 뒤따르는 노가 현대화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600여 년 전 당시의 언어로 지금까지도 존속되고 있는 점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만할까? 그 비교대상으로 중국의 경우를 보자.

중국에는 주지하듯 대표적인 고전극으로 京劇이 있다. 이 경극은 중국최초의 본격적인 연극으로서 元나라때 시작된 元曲과 明나라 때의 昆曲(昆劇)의 흐름을 이어받는 가극으로, 그 대사는 한문과 중국어의 중간적인 성격을 띤 韻白(韻白)가 主를 이룬다.¹⁸⁾ 그런데 이 韻白은 물론 현대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르나, 이는 소위 일본의 한문훈독(書き下し文)식 문장과도 유사하여 무리해서 경청하자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그런데 다나카 겐지(田中謙二)에 의하면, 경극을 비롯한 중국의 고전극은 그 이해에 대한 난해성이 제기되어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하다가 1964년경부터는 대사나 가락에 현대화작업이 진행되어 지금은 대중들이 쉽게 감상할 수 있게끔 되었다한다.¹⁹⁾ 즉, 세계 대부분의 고전극은 특히 그 대사면에서 오늘날의 언어와는 차이가 있어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해 사라지거나 혹은 현대화작업을 통해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옛 대사와 동작 그대로 지금도 상연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전통주의성향의 일환이 아니고 무엇이라.

이상에서 보듯 본고에서는 계통별로 한두 가지의 예만 들었으나, 이와 같은

17) 이와 관련하여, 노는 그 종류에 따라 前場과 後場으로 나뉘어 상연되기도 하는데, 특히 前場이 끝난 후에는 아이쿄갱(アイ狂言)이 설정되어있어 前場의 내용을 다시금 요약하여 설명해준다. 이는 관람객의 노 이해를 돕기 위한 설정으로 당시에도 노 이해가 어려웠음을 말해줄 것이다.

18) 京劇의 대사는 그밖에도 京白이 있는데, 이는 주로 익살꾼역이나 소녀 혹은 어린이역을 맡은 배우가 구사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대사는 韻白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로 이 韻白은 중국의 安徽나 湖北지방의 사투리성격을 띤 발성으로 다분히 리드미컬하다.

19) 山上春平·梅原猛共編(1969) 『シンポジウム日本と東洋文化』(新潮社, p.165). 本書는 좌담회형식을 취해 기록한 책으로, 그중 상기 인용부분은 田中謙二의 언급이다.

일본의 전통주의성향은 물론 그 성격상 다른 論考를 통해 다루어져야하겠으나, 소위 일컫는 고토다마(言靈) 신앙이나 茶道, 혹은 神道나 불교문화 등, 그밖에 여러 사회전반에 걸쳐 엿볼 수가 있는 것으로, 이는 기존의 일본·일본인론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다만, 일본의 전통주의는 전통자체를 답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정부분 시대의 상황이나 기호에 부응하여 변화를 가미한 창조성을 띤 것으로, 가히 창조적 전통주의라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는 천황제의 경우 각 시대마다 정치적인 역학관계에서 비롯된 권위의 변천이 그렇고, 연호제도 또한 그 제정에 대한 방법의 변화가 그렇다. 노포의 경우 또한 각 시대마다 바뀌는 대중들의 기호에 맞춰 변화를 거듭해왔고, 노의 상연 시간이나 발성법의 변화 또한 그렇다.²⁰⁾ 즉, 한번 정립된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방법이나 취향과 관련된 미시적인 부분은 항상 당대의 상황이나 기호에 맞추어 변화를 도모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주장하는 창조적 전통주의로, 전통주의에 창조적이라는 문구를 더한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본·일본인이 갖는 창조적 전통주의의 起源은 과연 어디에서 구할 수가 있을까? 이하에서는 그 배경과 관련하여 과거 일본이 취해왔던 문화수입국으로서의 면모와 그들의 지정학적인 여건 등을 통해 조명해보기로 한다.

3. 창조적 전통주의의 배경

대저 문화는 流水와 같아 큰 이변이 없는 한 정체되는 법 없이 발상지에서 성행하다가 그 밖의 지역으로 물 흐르듯 전파되는 게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선 이와는 반대로 과거 역사를 통해 보듯 武力에 의한 정복자논리의 강압적인 문화전파도 있었다. 여기서 전자의 경우는 자연적인 유입과 수용이라는 점에서 생명력을 갖으나, 후자는 과거 몽고침입 후 강압적으로 행해지던 몽골식 변발형태가 말해주듯 일부에서 잠시 머물다 사라지고 마는 일

20) 이를 부연하여 설명하자면, 가령 先代로부터 물려받은 우동가게의 경우, 그 메뉴설정은 선대의 것을 그대로 따르되, 시대의 요구에 따라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미하여 새로이 재탄생시키거나 혹은 신 메뉴를 개발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이라 하겠다. 아울러 能 발성법의 변화는 武家사회나 군국주의 시절의 영향으로, 그에 따라 상연시간도 길어졌다고 일컫는 것이 일반론이다.

회적 성향이 강한 것이었다. 그러면 일본의 문화정착과정은 과연 어떠했을까?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언급해둘게 있다. 그것은 문화개체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것으로, 사전류에 보이는 문화에 대한 간략한 정의를 보면, 이는 「예술이나 학문 등 인간이 생각해낸 達成도가 높은 것을 가리킴과 동시에, 인간사회가 오랫동안 형성해온 관습이나 행동거지의 체계」²¹⁾를 의미한다. 그런데 후자는 인간의 특별한 의식과정을 통해 생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생활속에서 자연적으로 익혀진 의식주와 관련된 일종의 미시적 차원의 문화로 본고의 언급대상이 아니다. 즉, 비록 이 두 측면의 문화는 상호보완관계로 유기적인 체계를 갖긴 하나, 본고에서는 전자의 「달성도가 높은」 일종의 거시적 차원의 문화만을 대상으로 언급함을 밝혀둔다.

한편 우리가 일본문화를 논할 때, 물론上古의 야요이(弥生)문화 때까지의 진위여부는 논외로 치더라도, 백제의 阿直岐나 王仁박사에 의한 한자나 유교문화를 비롯하여 6세기중반 백제 聖王시절 이래의 불교문화 등, 많은 부분이 한반도를 경유하여 일본으로 흘러들어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일본의 아스카(飛鳥)문화시대를 전후한 백제문화의 전래는 당시 활약하던 도라이징(渡來人)의 존재가 시사하듯, 전문지식인을 비롯한 상류계층에 의한 문화전파가 대부분으로, 이는 과거 스이코(推古)朝 이래 견수사(遣隋使)나 견당사(遣唐使)를 통해 보듯 중국으로부터의 自意에 의한 직접적인 문화전래 또한 예외가 아니다. 즉, 일본문화의 근원으로는 물론 南方으로부터의 유입설도 일정부분 배제할 순 없으나,²²⁾ 적어도 명치유신 전까지는 한반도를 포함한 대륙문화가 그 중심에 자리하고, 또한 전파자의 대부분이 상류계층에 자의에 의한 문화수입이 대부분이었던 만큼 자연적인 유입이상의 전파력과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도자기기술이나 인쇄술처럼 임진왜란을 통해 빼앗아간 강탈문화 또한 예외가 아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한편으로는 외래문화 수용에 매우 적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큰 가치를 부여해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는 일례로 漢字읽기에 있어 중국발상의 音讀과 일본고유의 訓讀의 이해의 차이를 통해서도 알 수가

21) 비공식적 언급이긴 하나, 간략한 정의를 구해 Wikipedia 일본어판을 인용함. (ja.wikipedia.org/wiki/「日本の文化」 (검색일:2019.08.01)

22) 이에 대한 세세한 언급은 생략하겠으나, 예를 들어, <我々, 山々, 人々>등, 명사를 두 개 겹쳐 복수를 나타내는 언어나 巨石문화의 일부분은 북방계에서는 보기 드문 경향으로, 남방계의 영향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있을 것이다.²³⁾ 그런데 문제는 일본의 경우, 이와 같은 경향이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강하여 말하자면 일종의 일방통행식의 문화수입 강국으로서의 행보를 취해왔다는 점에 있다. 이는 적어도 명치유신 전까지 일본발상의 문화가 역으로 한국이나 중국으로 전파된 예가 과연 있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생각건대, 자고이래 일본은 문화수입 강국으로서 전달주체가 상류계층에 자의에 의한 문화수입이 대부분이었던 만큼 문화로서의 전파력과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어, 이것이 결과적으로 전통주의사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은 경향은 앞서 언급한 거시적 측면의 사회전반에 걸친 제도나 현상을 통해서도 인식할 수가 있는 바로, 이는 적어도 그 근원의 하나로 작용되어 내면화되었음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선 일본이 섬나라였다는 과거의 지정학적인 요인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상류계층에 자의에 의한 문화전파는 물론 본고에서 제시한 창조적 전통주의의 당위성 또한 그와 맥락을 같이할 것이다.

즉, 흔히 중국에서 한중관계를 형용할 때 자주 쓰는 고사성어로, 隋文帝가 陳나라를 일컬어 언급한 一衣帶水(南史·陳後主紀)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한국과 중국은 한줄기의 좁은 강물하나를 사이에 둔 인접국으로, 古來로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끊임없이 교류해왔음을 뜻한다. 그런데 후자는 이 용어를 한일관계에 빗대어 언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보다 우리는 흔히 한국과 일본의 지리적인 면을 논할 때 주로 玄海灘이라는 말을 쓰곤 한다. 그런데 이 말 또한 우리가 조선시대 이래 사용하던 말이라느니, 일본태생의 용어라느니 하여 여러 견해가 있으나, 여기서는 그 어원과 관련된 논쟁은 논외로 치고, 아무튼 이 현해탄은 지금의 대한해협 남쪽과 일본 규슈(九州) 북서쪽사이의 바다를 잇는 해상통로를 일컫는 말로, 특히 교통수단이 원만치 않았던 과거에는 왕래하기가 매우 힘든 지역이었음을 뜻한다. 즉, 이곳은 수심은 그리 깊진 않으나 풍파가 심할뿐더러 조류가 마치 강의 여울처럼 매우 빨라 오가기가 힘든 지역으로, 일일이 열거하진 않겠지만 각종 예술계통에서도 역경의 상징어로 다용되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왕래의 난관성이

23) 예를 들어, 일본인의 이름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훈독에서 음독으로 읽는 경향이 강하고, 単語면에 있어서도 일례로 <有様>의 경우, 훈독의 <아리사마(ありさま)>로 읽을 때와 음독의 <아리요(ありよ)>로 읽을 때의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즉 전자는 부정적인 의미로써의 모양이나 상태를 뜻하나, 후자는 이상적인 상태나 모양을 의미하는 것이 그것이다.

동북아의 문화의 흐름과도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아닐까?

재차 언급하건대 문화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자연적으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흘러들어가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의 문화교류는 일의대수가 시사하듯, 그 유출입이 그다지 어렵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만큼 굳이 새로운 문화를 갈망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즉, 한번 유입된 문화는 새로이 들어온 문화에 그 자리를 내주기도 하고 또한 얼마든지 새로운 문화가 전래될 수도 있는 바, 이와 같은 문화전래의 용이성은 분명 우리네 문화에 대한 가치관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현해탄에 가로놓인 섬나라로, 그 우측에는 광활한 태평양이 자리하여 일단 유입된 문화가 다시 다른 지역으로 흘러들러갈 여지가 없었다. 그만큼 일본은 동아시아의 변방국에 기인한 문화의 停滯地로서 일종의 스톱(stop)문화의 형태를 취해왔던 셈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향은 바람의 흐름과도 연관이 있어, 문화의 흐름이 동북아의 주된 풍향이기도 했던 편서풍을 비롯하여, 겨울의 북서풍과 여름의 남서풍을 비롯한 계절풍의 영향으로 그 도착지가 일본이었던 점과도 관계될 것이다.

여기서 생각건대, 일본은 문화의 정체지로서 현해탄이라는 난관이 상징하듯 문화의 소통이 그리 여의치만은 않았고, 따라서 이점이 그들의 문화에 대한 가치관정립에 기여한 바 크지 않았을까? 이는 앞서 언급한 일본의 자의에 의한 문화수입과도 무관치 않으며, 또한 그 이유의 하나로 좋은 싫든 간에 전통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던 의식과도 연결될 것이다. 즉, 문화수입 강국으로서 신문화가 유입될 때까지 그들은 작금의 유입문화를 소중히 다루어 내면화시킬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이를 그들만의 일본화과정을 통해 정형화시켜놓았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 의식의 原型으로 자리매김 되는 전통중시사상으로, 특히 그들의 일본화과정은 이 전통주의에 창조성을 띠게 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증빙하는 일례로, 무로마치 후기 노 연기자이자 이론가이기도 했던 곤과루 쯤포(金春禪鳳)의 언급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즉, 그의 노 이론서 『호고우라노쇼1(反古裏の書1)』에는 노 제작과 관련된 언급으로 「중국이나 인도관련 사항이라 할지라도 노는 일본의 예능인만큼 일본화해서 만들어야 한다(唐土·天竺の事も、和国の能なれば、和してつくるべし)」²⁴ 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여기서 노가 「일본의 예능」이라 함은 나라 시대 당나

24) 表章·伊藤正義校注(1969) 『金春古伝書集成』 わんや書店, p.362.

라로부터 유입된 산가쿠(散樂)가 무로마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미 일본화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현대 일본문화의 연원과 관련된 여타의 일본문화의 근원을 비롯하여, 본고에서 제시한 창조적 전통주의의 정립시기를 시사하는 것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아울러 문학사적 견지에서 보자면, 창조적 전통주의의 창조성의 내면에는 장인정신에서도 보듯 그들 나름대로의 자긍심에서 비롯된 근성이 작용되었을 개연성 또한 배제할 순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건당사폐지 후 한때 文章經國思想이 주류를 이루던 헤이안 시대 초 그 반동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고쿠후(國風)文化의 도래를 비롯하여, 에도시대 유교가 官學으로 지정된 후의 고쿠가쿠(國學), 그리고 명치유신 후 서양의 사실주의가 도래된 뒤 켄유샤(硯友社) 소속작가들에 의한 고전취향의 사실주의가 한때 각광을 받던 것이 이를 방증할 것이다. 즉, 일본·일본인이 갖는 보편적 이데올로기로서 본고에서 제시한 창조적 전통주의의 배경으로는 앞서 언급한 상류계층에 자의에 의한 문화수입과 더불어 과거 일본의 지정학적인 여건은 물론, 이와 같이 외래문화 수용 후 마치 기다리고나 있었듯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근성 또한 그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4. 맺음말을 대신하여

앞서 언급했지만, 지구상 그 어떤 나라도 국민정서상에 갖는 보편적 이데올로기는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국민정서는 주로 그 나라가 갖는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 일반적으로, 흔히 일컫는 우리나라의 情(孝)의 문화 또한 우리의 농경사회나 유교문화에 뿌리를 둔 것이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종종 언급되는 우리의 빨리빨리 습성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 빨리빨리는 물론 긍정과 부정의 양면적 의미를 갖긴 하나, 작금의 글로벌 시대에 이미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회자될 정도이니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된 느낌인데, 이 또한 그 생성요인으로 과거 우리나라가 겪은 수많은 외세침략을 그 예로 들 수가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래 대한제국 때까지 총 931번에 걸친 외적의 침

입이 있었다하는데, 이는 일추 2년에 한번정도로 침략을 당한 셈이다.²⁵⁾ 그런데 그 최초의 출처는 알 수 없으나, 이처럼 수없이 많은 침략을 당한 국민이 취할 수 있는 행보로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우선은 예고도 있을 리 만무한 갑작스러운 침략에 빨리빨리 수를 써서 막아야만했을 것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선 생명유지 차원에서 빨리빨리 몸을 숨겨 후일을 도모해야만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바는, 우리의 빨리빨리 습성은 근대화이후 경제부흥과 더불어 생성된 문화가 아니라, 이미 세종실록 15년 7월 12일조에도 언급된 바로,²⁶⁾ 그 연원이 매우 깊다는 점에 있다. 즉, 우리네 빨리빨리 습성의 배경에는 아마도 이와 같은 우리의 슬픈 역사와 경험이 내면에 자리하여, 이것이 우리의 원형(DNA)으로 남아있었던 것은 아닐까? 적어도 그 개연성만큼은 부정할 순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일본의 창조적 전통주의 또한 그 생성요인으로써 문화의 전달주체가 상류계층에 자의에 의한 문화수입이 주였고, 또한 일본이 문화의 停滯地이자 스톱문화였다는 지정학적인 요인 등을 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창조적 전통주의는 앞서 언급했듯 일본의 정치나 문화계를 비롯한 사회전반에 걸친 거시적 측면의 특이성향을 논할 때 그 근원제시로 유효할 것이다. 그러나 그밖에도 일본의 창조적 전통주의는 그 구체적 언급은 생략하겠으나, 예를 들어 일본의 돈가스나 카레, 커피등과 같은 미시적 문화요소는 물론, 요즘 학생들의 관심사이기도한 애니메이션 문화 또한 이를 통해 설명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중 특히 애니메이션과 연관된 繪畵관련 역사를 그 명칭만을 통해 추적하자면 그 원류는 이미 古代에 대륙에서 전래된 에마키(繪巻)로, 이것이 헤이안 시대에는 작품과 연관시킨 모노가타리에마키(物語繪巻), 아마도에(大和繪)등으로 발전하다가 중세에는 이에 水墨畵나 니세에(似繪)등, 그밖에 그림해설자인 에토키(繪解き)까지 등장하게 된다. 이어서 에도 시대에는 삽화가 들어간 소설류의 총칭으로 구사조시(草双紙), 우쓰시에(写し繪), 그리고 당시의 풍속화인 우키요에(浮世繪)등을 거쳐 오늘날에 이른다. 즉, 오늘날 미국 월트 디즈니(Walt Disney)에 비견되는 일본 애니메이션 문화의 발달은 근·현대에

25) 大崎正瑠(1998) 『韓国人とつきあう法』 ちくま親書, p.20.

26) 박현모(2014) 『세종이라면—오래된 미래의 리더십』 미다스북스, p.107참고. 이는 당시 세종대왕이 근정전 추녀머리(鷲頭)가 호우로 인해 무너진 것을 지적하며 「그런데 본국사람은 범사에 빨리하고자 하여 정밀하게 하지 못하니(然本国人凡事欲速, 未能精緻)」라 언급한 것이 그것이다. (sillok.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D/B.(검색일:2019.08.05)

들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고대사회에 뿌리를 두고, 또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새로운 개체와 접목되며 단절 없이 계속 이어져온 창조적 전통주의의 한 産物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앞서 퍼시벌 로웰도 지적했듯, 흔히 일본을 가리켜 모방과 형식(틀)에 얽매인 나라라 칭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오늘날 시각에서 보자면 이는 분명 沒個性적으로 독창성 결여와 연계된 부정적인 평가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되는 바는, 일본은 일종의 태생적 문화수입국으로 외래문화를 수용함에도 결코 모방 그 자체가 아닌 일본화과정을 통해 창조성을 가미했고, 형식은 일본화과정을 거친 창조의 결과물이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즉, 그들 문화의 중심에는 항상 전통주의사상이 자리했고, 여기에 또한 시대적인 환경이나 요구를 반영한 창조적인 변화를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일본·일본인론으로서 필자가 제시하는 창조적 전통주의로, 이는 또한 일본의 文學史上에서 보는 창작기법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그 전후관계는 논고를 달리하여 언급해보고자 한다.

<參考文獻>

- 김용운(1994) 『한국인과 일본인』 3, 한길사, p.239.
 루스·베네딕트著, 김윤식·오인석 옮김(1991) 『국화와 칼』 을유문화사, p.8.
 박현모(2014) 『세종이라면—오래된 미래의 리더십』 미다스박스, p.107.
 網野善彦(1980) 『日本中世の民衆像—平民と職人—』 岩波新書, p.107.
 大崎正瑠(1998) 『韓國人とつきあう法』 ちくま親書, p.20.
 表章·伊藤正義校注(1969) 『金春古伝書集成』 わんや書店, p.362.
 新編国歌大観編集委員会(1987) 『新編国歌大観』 第五巻本, 角川書店, p.1001.
 山上春平·梅原猛共編(1969) 『シンポジウム日本と東洋文化』 新潮社, p.165.
 (batonz.jp/learn/223/) 「世界の老舗の80%は日本にある!?意外と知らない老舗大国日本の秘密」 バトンズ (Batonz)運営人 大山敬義(검색일:2019.07.19)
 (ja.wikipedia.org/wiki/) 「日本の文化」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 (Wikipedia) 』(검색일:2019.08.01)
 (survey.gov-online.go.jp/s52/S52-08-52-10.html) 「元号に関する世論調査」内閣府政府広報室 (검색일:2019.07.17)

논문 투고 일자 : 2019. 10. 13.
논문 심사 일자 : 2019. 11. 03.
게재 확정 일자 : 2019. 11. 06.

<要旨>

<創造的傳統主義>觀點からみた日本論

李珍鎬

こんにち、日本・日本人論は数多く出されている。しかしながら、世界に類をみない要素で、古代以来続けられてきた万世一系の天皇制を始め、大化以降の元号制度や世界一の老舗の数、あるいは六百年余りの昔の台詞で未だに演じられている能など、こんにち日本の多方面にわたる巨視的な文化現象や制度などを説明できるような論はないといつてよかろう。そこで、本稿では、これらの要素の根源で、もう一つ日本・日本人のもつ普遍的なイデオロギーとして創造的伝統主義を提示した。ところで、こうした伝統主義の起源と関係する背景としては、まず日本が文化輸入強国として、古代以来文化伝播の主体が上流階層で、しかも自為による文化輸入が主だっただけに、文化としての生命力をもつことができ、それが結果的には伝統主義と繋がっ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それに、日本は、玄海灘が横たわった島国で、東北アジアに吹く偏西風や季節風と関係する文化の停滞地でストップ文化であったという、過去においての地政学的な与件を挙げることが出来よう。また、この伝統主義に創造性をもつのは、伝統を重視してきた過程において生じた外来文化の日本化によるものが主で、この創造的伝統主義は、今日の日本の位相定立に多大な影響を及ぼし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

Japanese theory from the perspective of creative traditionalism

Lee, Jin-Ho

Today, there are many theories on Japan and Japanese people. However, there is no theory that can explain globally unprecedented elements and macroscopic cultural phenomena or systems that exist in Japan today, including the emperor system of the unbroken imperial line existent since ancient times, the Japanese calendar system since the Taika, the number of the world's best old stores, or the Nō, which is still performed with the same lines since more than 600 years ago. Thus, this paper presents creative traditionalism as a source of such elements and as a universal ideology of another Japan and the Japanese. However, considering the background related to the origin of traditionalism, Japan being a country that actively imported cultures, the main subject of cultural propagation is the voluntary importation of cultures by the upper class and therefore has vitality. This could in turn lead to traditionalism. In addition, Japan has past geopolitical conditions such as being an island country bordered by the Straits of Korea and being a stop-culture or a site of culture associated with the Western winds blowing through Northeast Asia or the seasonal winds. Furthermore, traditionalism retains creativity mainly due to the Japanization of foreign cultures that occurred during the process of focusing on tradition, and it can be said that this creative traditionalism has greatly influenced the establishment of Japan's status today.